

일주 문



국제포교사 품수식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2회 국제포교사 자격 품수식을 봉행하고 28명을 국제포교사로 품수했다.



홍보마케팅 워크숍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념 스님은 '홍보마케팅 워크숍'을 11월 30일 복지재단 교육실에서 개최한다. (02)723-5101



김흥국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김흥국장학재단 김흥국 이사장은 11월 17일 강남구 신사동 자비원에서 정유진(전동호등학교 6학년) 어린이 외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홀커밍데이 개최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11월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동문 초청 홀커밍데이 행사를 'Come together with the 108Project'를 개최했다.

서예전 연 월서 스님
수익 7160만원 전달



'북한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돕기 서예전'을 개최한 조계종 원로원 월서 스님이 11월 19일 수익금 7160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지관 스님에게 기증증서를 전달한 월서 스님은 "부족한 솜씨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총무원 사회부 직원들이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수익금을 북한동포 돕기와 이주노동자 돕기에 50%씩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형 기자

인사

진각종 통리원 △총무국장 효심 정사 △기획국장 정호 정사 △관재국장 서원 정사 △포교국장 선해 정사 △문화사회국장 원암 정사 △건설국장 원해 정사 △교육원 교법국장 법경 정사 △교육국장 권명 정사 △대한불교진각문화진흥원 건립추진팀 건설담당 원주 정사

“불교학의 르네상스 이룰 터”

한국불교학회 신임 회장 김선근 교수

“정법불교의 보편화, 불교 교단을 빛내는 학회,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통해 불교학의 르네상스를 이루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34회 한국불교학회 정기 평의원 총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된 김선근 교수(동국대 인도철학학과)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당시 소감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개울물도, 강물도, 바닷물도 된다”는 <우파니샤드>의 구절에서 인용했던 김 교수는 초기불교 전공자답게 학계를 비롯한 불교계 전체가 부처님 당시의 초발심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했다.

“학회장 소임을 평생 임은 불은(佛恩)에 보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김 교수는 성철 스님, 종답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으로부터 불교를 배웠다. 박성철 교수, 김홍정 교수, 박삼국 문화재단문위원 등 불교학계의 기라성들이 그와 봉

은사 대학생 수도원에서 동문수학한 도반이다. 이렇게 불교를 배우고 초기불교를 전공한 탓에 정법에 대한 갈망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

김 교수는 기복(祈禱)이 아닌 수복(修福)을 강조하면서 실천을 위한 학문을 역설했다. 그 점에서 그는 “입기 동안 학자들이 교단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영문 저널 발간 계획도 밝혔다. 불교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모은 영문노서물 출간해 외국학자들에게 그들을 소개하고 한국 불교의 활동영역을 세계로 넓혀겠다는 것이 사업의 요지다.

이런 비전 실현을 위해 그는 인문인계부터 회원간 합의를 이루기부터 공의에 의해 운영되는 학회를, 또 회칙·정관 등을 정비해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학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 임기는 2년이며 2008년 불교학결집 대회가 끝나는 5월 이후 시작된다. 매일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에게 차를 올리며 <법화경> 사경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김 교수의 원력으로 한국불교학회의 미래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금강선원 단합대법회



(사)한국불교금강선원(이사장 이홍표)은 11월 17일 제천 모산동(구)정암포교원 부지에서 제3회 전국 단합대법회 및 금강선원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 이사장 이홍표 법사, 안영근 장로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활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故 이동성 법사님의 큰 원력을 받들어 여성 불자 교육 및 비구녀 양성을 위한 불도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02)969-2410

이주노동자 위한 의료·법률 봉사



서울 대각사행복한이주민센터는 11월 11일 고려대학교의료원불자회(회장 김우주)와 함께 오산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은행·법률상담서비스를 펼쳤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법당 개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법당 개원법회가 11월 16일 안암병원 대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생계사 승가대 교수 월호 스님, 개운사 주지 공운 스님, 건대병원법당 지도법사 법경 스님, 삼성병원 불교실 혜철 스님 등 병원 지도법사스님들과 고대불자회, 원우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능인정사 법당 개원 및 자비의 쌀 나누기



서울 능인정사(주지 법경)는 11월 21일 광진구 능인정사 법당 이전법회 및 “어려운 이웃과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진구·성동구 각 1007가씩 독거가족, 차상위계층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각 2kg 쌀 한 포대가 전달됐다.

“지역사회에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관 만들 터”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능인 스님

원, 지역사회 주민 등에게 폭넓게 다가간 것을 인정받은 결과다.



올해로 8년째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은 “‘온화한 열광, 부드러운 말씨,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시자’는 관훈을 항상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모든 직원·봉사자들이 하나로 뭉쳐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능인 스님이 11월 14일 ‘2007 노인복지관 전국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스님의 수상은 일산노인복지관이 이윤어르신, 담당공무

“봉은사에 김교각상 봉안”

중국종교교 예사오원 국장 방한

“김교각 지장왕보살 입상을 한국에 봉안하게 된 것을 계기로 양국의 불교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지장왕보살로 추앙받는 김교각 스님의 입상을 국내에 봉안하기 위해 예사오원(葉小文) 중국국가종교교장이 11월 21일 방한했다.

김교각 지장왕보살 입상은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하고 2007년 한중 교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조성해 한국에 기증한 것이다. 김교각 지장왕보살 봉안법회 봉행위원회는 20일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에서 접안법회를 봉안한 입상을 국내로 이송해와 23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안식을 봉행했다. 높이 2m 가량의 입상은 경주 동국대 정각원으로 옮겨져 봉안될 예정이다.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예사오원 국장은 “보살상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며 “보살상은 대만 노승나무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사오원 국장은 “중국과 한국 불자들이 모두 김교각 스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보살상 봉안은 양국의 문화교류사에 기록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각 스님은 7세기 말 신라 왕자로 출생해 출가했으며, 20대에 당나라로 건너가 구화산에서 수행했다. 99세에 열반에 든 후 중국 인들로부터 ‘지장왕보살’로 추앙 받았다. 여수형 기자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

사단법인 보리 조채희 국장

사단법인 보리의 조채희 사무국장이 제6회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1월 20일 “불교 시민단체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단법인 보리와 생활생태연구소 등에서 19년 동안 한길을 걸어 온 것이 불자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조채희 국장은 보리방송모니터회(1990년), 두레문화기행(1991년), 생활생태연구소(2002년) 창립멤버로 현재까지 각 단체에서 실무를 맡으며 불교언론·환경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상식은 12월 1일 오후 3시 서울 만해 NGO교육센터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중앙승가대 후원회 출범식



다수동참·소액동참·지속동참을 표방하는 중앙승가대(총장 종범) 후원회가 출범했다. 11월 20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승가 교육 불사를 다짐하는 중앙승가대 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청화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등 종단 원로스님과 동문스님들이 동참했다. 종범 스님은 “승가교육 동참은 복과 도를 한꺼번에 얻는 것”이라며 대중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조동섭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종회 법인설립

대한불교 선종의 종지종풍을 함양하여 불교중흥과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문화관광부로부터 2007년 11월 9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Table with columns: 종단임원 소개, 교구 임원. Includes names and positions like 종장, 원로의장, 총무원장, 교무부장, 재무부장, 사회국장, 검찰국장, 총무원장, 총무국장.

총본산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 054)261-7777 오봉산 대원사
총무원 : 경북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 054)748-0462 남산 천선사

전통따주가지도사 강좌(1박 2일) 안내

한국전통따주기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서 예들들면, 급제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관리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여,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사전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압기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부러진 뼈와 수술부위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가능 합니다.
따주기로 사주와 무관하게 숙명과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특 전

- 교육이후 수료증 수여
한번 수강으로 이론·실습 모두 완료함(비법 전수)
교재 및 따주기 도구 지급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이웃 건강관리(병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학생지도 및 신도 포교에 최적입니다.
따주기 사회봉사도 많은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전통따주가지도사로 활동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풍, 급제, 기절, 경기 등 위급시 비상 처치법으로 활용합니다.

강좌일 (선착순 각 20명)

- 광주교육장 : 2007. 12. 1(토) ~ 2(일)
부산교육장 : 2007. 12. 8(토) ~ 9(일)
대구교육장 : 2007. 12. 15(토) ~ 16(일)
대전교육장 : 2007. 12. 22(토) ~ 23(일)

강좌 문의 : 041)944-2237 (010-3234-2237)
(문의시 세부 강좌 프로그램 보내드립니다)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